

불안정한 세계경제

단기적 하락 · 중장기 지속성장 전망

최근 불안정한 세계경제의 단기 악재에도 불구하고
농약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식량 · 사료재배에서 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 재배에 그 사용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시험부-

2009년도 세계농약시장은 달러기준으로 볼 때 2008년도의 두 자릿수 성장과는 달리 1.9% 정도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다. 시장후퇴의 주된 원인은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불안정한 세계경제 상황이 농업인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 악재에도 불구하고 농약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식량 · 사료 재배에서 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 재배에 그 사용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또한 오래되고 값싼 농약의 등록취하와 고부가가치의 원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새로운 농약규정이 업계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맞서 제네릭 제조사들은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와 같은 특정 농약에 있어서

대량생산하여 판매가격을 더 낮출 것이다. 올해의 글리포세이트 가격하락은 제조업체 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항성 잡초 방제약제의 확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만회될 것이다. 높은 종자가격은 종자처리제의 지속적인 판매에 도움을 주며, 사전 약제처리 된 종자 보급이 늘어날 것이다.

북미지역 시장

2008년의 높은 소득을 얻은 농민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계속 농약을 구입할 것이므로 2.8%의 강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미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낮아진 가격과 불확실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1.1%정도 감소될 전망이다. 재생가능 에너지 법령이 바이오에탄올 사업의 확대를 지원하지만, 현재와 같은 국제유가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는 바이오에탄올 산업에 의한 옥수수의 농약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콩 재배면적은 옥수수에서 콩으로 전환된 면적을 포함하여 0.4%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목화는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밀 재배면적도 7.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리포세이트 가격은 올해에도 더 낮아질 것이나 그 감소세는 남미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곡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체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만,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작물의 재배확대로 사용량은 계속하여 증가될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제초제의 판매에서, 특히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저항성 발현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이에 발맞추어 바이엘에서 개발한 리버티링크(LibertyLink) 콩 품종의 도입은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매출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자의 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병해충을 예방하는 종자 처리제의 사용은 지속될 것이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2(Roundup Ready2) 콩 품종의 경우 이미 사전시험을 마치고 곧 기존 시장에 출시될 것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살균제 시장은 옥수수, 콩 및 밀에서 높은 수확량을 만들기 위해 더욱 사용될 것이다. 잔

디, 정원등에서의 해충 방제와 같은 비작물 분야에서는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의 상황으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미지역

총 매출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제조사들의 긴축경영에 영향을 받을 것이나 농민들의 농약사용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2.7%의 성장이 전망된다. 남미지역 매출은 2008년에 농민들이 높은 소득으로 많은 빚을 청산한 브라질에서의 성장에 힘입을 것이다.

비록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일정수준의 수익은 보장되고 있다. 일례로 주요 작물이 심겨진 지역은 2009년에도 수입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콩 재배지역에서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가뭄과 수출관세의 영향으로 줄어든 아르헨티나에서의 콩 생산량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사탕수수 분야도 높아진 가격과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증가로 인해 확대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 콩, 옥수수, 밀의 재배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산업계는 농민과 정부사이의 지속되는 대립의 중간에 놓일 것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의 글리포세이

트 사용량은 중국의 제조사들이 비축한 물량덕분에 충분히 확보된 상태지만, 작년 높은 가격과 비교하여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매출액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서유럽지역

미국 달러화 기준 대략 0.4%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열악한 환율에 따른 유로화의 약세가 지속됨과 동시에 농민들의 수요가 작년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U의 휴경장려제도를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재배면적을 포함한 농경지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지난해의 기록적인 풍작은 농산물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켰고, 투기적인 농산물 거래가 없어졌다. 그 때문에 2008년에 크게 증가했던 곡물의 제초제와 살균제에 대한 수요는 올해에는 감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식량재고율은 여전히 낮고, 농약의 수요가 점차 회복되어, 농산물의 낮은 생산량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이후에는 농산물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이란 견해가 크다.

곡류에서의 매출 감소는 유채에서 반전을 시킬 것이다. 유채는 바이오디젤 생산의 증가로 인해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탕무의 농약수요도 높은 설탕 가격의 영향으로 높아질 것이다. 다른 변수는

EU의 농약성분의 재검토 일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농약이 취하되었다. 그러나 취하된 농약은 대체약제가 없고 틈새 시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다. EU에서 농약성분 재검토의 더 큰 문제점은 유해성을 기준으로 한 제품승인 과정의 개정에 있다. 새로운 규정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주요 약제들이 등록취하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동유럽지역

거시경제 영향을 받아 2.3%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금융 불안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쳐 투자를 감소시키고 농약 구매를 어렵게 할 것이다. 주로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낮은 물가로 인해 이런 상황이 가속될 것이다. 침체는 몇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호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현대화가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극동지역

매출은 1.9% 성장할 것이다. 일본이 이 지역에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금년도의 엔화 강세로 달러기준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심화되어 성장률은 좋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절

약형 제품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중국 농약시장은 수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중국 내에서 글리포세이트의 지나친 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다.

전체적인 제초제 매출은 북부 및 서부 지역의 가뭄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자국내 수요는 경기둔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세계 경제침체로 중국 제품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과 최근 강화된 규정은 오히려 중국 농약산업의 내실을 더욱 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수확량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을 늘림에 따라 농가 구매력을 자극시킬 것이다.

호주에서는 수출 약제로 시장은 하락이

예상된다.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캐놀라의 재배 증가는 제초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다른 시장도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타지역

매출은 0.7%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약수요는 낮은 가격에 영향을 받아 둔화되고 지난해 대비하여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의 경우, 비록 Bt면화가 증가되었지만 결국은 면화의 최소 보조금 지급이 매출을 유지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다른 작물에서도 수확량 증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우수한 종자와 농약사용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Y

잠깐!



농약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

농약은 등록될 때 안전성을 검토하게 되며, 또한 사용 중에는 농산물 및 환경 중 잔류농약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농약을 등록하고자 하는 농약회사는 해당 농약의 이화학적, 약효,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을 농촌진흥청에 등록신청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약평가과로 하여금 분야별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1차 내부평가를 하게 된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1차 내부평가한 결과를 정리요약해서 농약의 약효와 안전성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게 된다. 즉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된 농약만이 적합농약으로 심의되어 농약으로서 등록하게 되는 것이다.